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그 현장을 다녀오다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마감 예정 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렸다. 파리 총회 개최를 보름 조금 더 앞둔 11월 13일 바로 파리에서 파리 역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총격 폭발 테러가 발생해 100여 명이 사망했기에 파리 총회가 무사히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참가를 약속했던 138개국 정상들 모두 참석했고 시민사회계나 산업계, 학계 대부분 예정대로 참가하였다. 이 파리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체결되어 국제사회는 이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회의 시작 몇 달 전에 나는 서울시 지원으로 파리 총회에 참석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변에서 꼭 가야 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참여하게 된 이유는 내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위한 실행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실행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실행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사실 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 가장 먼저 참여했던 회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던,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였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생이었는데 석사논문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작성했기에, 또 교토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아래 구속력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역사적 현장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 회의에 꼭 참석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던 COP-9에 다녀왔고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COP-13을 다녀왔다. 하지만 그 뒤로는 참여할 기회가 몇 번 더 있었지만 총회 현장에 구태여 가지 않았다. 매일매일 에너지를 아껴 쓰고 미니태양광 발전기로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었기에 이를 늘리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요즘처럼 IT가 발달한 세상에서 굳이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 년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총회장을 다녀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파리 총회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참석하기로 했다. 파리 총회 기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로 불렸을 정도로 다른 어떤 당사국총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COP-3 때처럼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2014년에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COP-20을 통해 파리에서 열릴 COP-21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후체제를 여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개별 국가들이 제출할 국가별 기여방안(Intentionally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을 제출하는 시기와 제출 원칙, 제출 내용 등에 합의를 한 상태라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래서 테러로 인해 불안감이 높았던 시기였지만 그런 역사적 현장을 보고 싶었고 기억하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참여함으로써 참가자 수를 한 명이라도 더함으로써 그곳 정부협상단들에 압력이 되고 싶었다.

강의가 화요일 오전에 있었고 수요일엔 부원장 회의가 두 개나 있어서 목요일인 12월 3일이나 파리로 출국할 수 있었다. 테러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대표를 포함해서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4만

여명의 참가자들이 파리로 향했다. 내가 파리에 도착하기 전이자 파리 총회가 개최식을 하기 하루 전인 11월 29일 테러 이후 시위 금지령이 내려진 파리의 레퓌블리크 광장에 약 2만 켤레의 신발이 파리 광장에 전시되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어려워지자 기후변화에 맞서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아 각양각색의 신발을 놓아둔 것이었다. 그 신발들은 전시 후 모여져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모두 4만 톤 정도가 되는 양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파리 총회는 시작부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소식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또 나보다 먼저 참석하고 있었던 김민수 학생을 통해 전해 들었기 때문에 빨리 참석해서 그런 압력을 나 또한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그림 1. 레퓌블리크 광장에 놓여진 신발들 (촬영: 김민수)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해보니 무장한 군인들이 돌아다니며 공항 경비를 서고 있었다. 또 르부르제 총회장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행사장은 블루존과 그린존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두 곳 모두 입장할 때 엄격한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그래서 이 두 행사장을 오갈 때면 그때마다 검색을 받아야 했다. 물병이나 음료수병에 액체가 차 있으면 검색대를 통과할 때 액체 폭발물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한 모금씩 마셔야 했다. 블루존에는 총회사무국에 등록되어 있어서 ‘출입허가증’이 있는 참가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부대표단들이 협상을 하는 본회의장이 있었고 산업계나 학계 NGOs가 주최하는 부대 행사(side-event)들이 열렸다. 또 블루존의 여러 건물들에는 다양한 전시행사가 있었는데 각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여러 정보를 담은 국가별 전시관과 국가별 사무실이 있었고 기자들이 모이는 프레스센터가 있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나 NGO들이 자신들이 발간한 보고서나 자료들을 전시하고 나눠주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린존에는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주로 NGOs나 학계 지방정부 주최 부대행사가 열렸다. 부대행사란 특정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말한다. 나는 서울시 대표단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출입허가증이 있어서 두 행사장 모두 출입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매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두 주간 열린다. 이 총회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온실기체 배출량 감소라는 완화활동이나 변화하는 기후로 야기되는 재난을 줄이기 위해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여가는 적응활동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 당사국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협상하기 위해 열린다. 그런 만큼 총회 행사 자체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기체 배출을 더 적게 하도록 기획된다. 국제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비행기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수단인 만큼 한 번의 탑승으로 배출하는 온실기체 양이 상당하다. 물론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다른 어떤 탈 것보다 비행기가 에너지 효율적이지만 국제행사인 만큼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연료소비가 많고 그만큼 가장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래서 어떤 행사 주체들은 이러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한다. 기부를 받아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행사장 안 여러 시설물이나 이용하는 물건들이 탄소 배출을 되도록 낮출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이번 파리 총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쓴 것이 인상적이었다. 등록을 하면 참가자들에게 일종의 선물을 주는데 그 물품들에 저탄소 친환경을 표방하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먼저 천으로 된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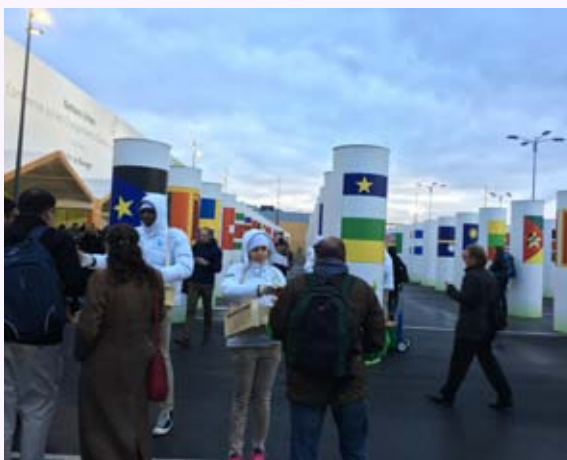


그림 2. 블루존 입구(좌)와 그린존 입구(우)(촬영: 윤순진)

에 이것저것을 담아줬는데 그 가방엔 “I was a sweater”라고 적혀 있다. 스웨터를 찢던 실을 풀어서 그 실로 가방을 직조한 것이다. 가방 안에는 총회 참가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승차권이 지하철 노선도를 여러 겹 접은 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다. 또 친환경 소재로 만든 물병이 들어 있는데 행사장 곳곳에 정수기를 설치해줬기 때문에 그 물병에 물을 채워서 마시면 되도록 해두었다.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컵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컵이었는데 보증금제도로 운영되었다. 행사장 내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나 차 등 음료를 주문할 경우 음

료가격 외에 컵 당 1유로의 보증금을 내고, 마신 후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었다. 이런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종이컵 사용을 줄일 수 있었다. 또 행사장 안 카페테리아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식재료도 신경을 썼는데 모든 어류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해 잡은 거라든가 남은 음식재료는 푸드뱅크에 모두 기부하였다. 행사장에 설치된 분리 배출용 쓰레기통은 두꺼운 재활용 종이로 만든 것이었는데 휴지통 뒷면에는 조립도가 그려져 있어서 휴지통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림 3. 에코백(좌)과 정수기(우) (촬영: 윤순진)



그림 4. 보증금제 플라스틱 컵(좌)과 분리배출 종이 휴지통(우) (촬영: 윤순진)



르부르제 역에서 행사장까지는 셔틀을 무료로 운행해서 참가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해도 불편이 없도록 했는데 셔틀버스는 하이브리드 차였다. 또 블루존에서 그린존 가는 길, 셔틀 버스 승하차장 옆에는 풍력발전기 나무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나무 모양의 구조물엔 에어로리프(Aeroleaf, 공기이파리)로 불리는 360° 이상 회전하는 나뭇잎파리 모양의 풍력터빈이 달려 있는데 나무 하나엔 63개의 공기이파리가 달려 있어서 시설용량이 4.1kW에 달했다. 이 정도 용량으로는 50W짜리 램프 15개를 켤 수 있고 전기차를 16,364km를 주행할 수 있다. 공기이파리 발전시설 앞에는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블루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당사국들의 국기를 하나씩 둘러놓은 원기둥들이 있었다. 그 원기둥 옆으로 블루존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현장 2>에 찍힌 것처럼 “생물다양성을 지키자”며 매일 아침마다 유기농 사과를 나눠주는 단체가 있었다. 신선한 유기농 사과를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반가웠다. 초기 며칠 동안은 공정무역마크와 탄소중립품이란 표시가 있는 초콜렛을 나눠주면서 재조립운동에 동참하기를 호소하는 단체도 있었다. 그 단체가 나눠준 초콜렛 포장에는 대통령과 총리,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정의를 위해 나무 심기 동참해 달라는 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발신인이 행성을 위한 나무심기란 단체의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되

어 있었다. 여러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펼치고 있었다.

내가 머물렀던 기간은 12월 4일에서 7일 사이 4일에 불과한 데다 협상이 쉬는 일요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행사기간 동안 일어나는 여러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3일에 불과했다. 12월 9일 날 석사학위 논문 심사가 있어서 8일에는 귀국해야 했기 때문에 더 머무를 수가 없었다. 내가 머문 기간 동안에는 총회 전반부라 협상과 관련해서 극적인 장면들은 별로 없었다. 나는 “적응의 발전을 따라가 보고 잘 준비되도록 만들기(Tracking adaptation progress and enabling readiness)”를 주제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와 캐나다의 맥길대학교, 에코스피어재단, 한국의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행사에 참여하였다. 내 발표주제는 “사회적 책임이란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준비: 서울 사례”였다. 세미나는 크게 1부 발표와 2부 토론으로 구성되었는데 발표자와 토론자가 각각 4명이라 1시간 반 동안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부족했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지 발표장은 빈자리 없이 꽉 찼다. 모두 학자들이 발표했는데 이런 부대행사들에 정부 대표단들이 참석해서 들으면 좋았으리란 아쉬움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행사장에 마련된 발표장은 1시간 반이나 두 시간 단위로 부대행사들이 빼곡히 진행되었다. 대학



그림 5. 셔틀 버스 주차장 앞에 세워진 공기이파리 발전기 설명글(좌)과 나무모양 발전기(우) (촬영: 윤순진)

이나 연구소, 재단이 주최하기도 하고 워낙 많은 참가자들이 발표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공간 부족을 이유로 부대 행사 신청 시 공동주최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어 여러 행사들이 다양한 기관들의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매년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는 매일매일의 부대행사나 본회의 행사들 시간표는 곳곳에 비치된 모니터 화면에 게시되거나 기후변화협약 파리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파리 총회에서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열렸고 발표자들은 대부분 참가자들로 보였다. 여러 부대행사들에 참석하면 현재 어떤 문제들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이나 대응정책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토론에 참여해서 내 주장을 펼쳐볼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정보만 받아보는 경우와 달리 이렇게 총회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부대행사들에 참여해서 직접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사장 특정 구간에서는 매일 매시간 다양한 퍼포먼

스가 이루어졌다. 누구나 아무 때고 퍼포먼스를 할 수는 없고 주최 측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지켜본 퍼포먼스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메리카 노동조합연합(The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the Americas, TUCA)이 “공정하고 야심찬 파리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행동 동맹(ACT Alliance)이 주도한 플래시몹 형태의 캠페인이었는데 이 단체는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140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140개 이상의 단체와 교회 조직 연합체로, “기후정의를 위해 지금 행동하라(Act Now for Climate Justice)”란 주장을 내걸었다. 나 또한 직접 이런 퍼포먼스에 참여하기도 했다. 환경재단에서는 이제석광고연구소장이 제작한 패널을 사용해서 “하늘에는 국경이 없다(There is no border in the sky)”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뉴욕, 시드니, 상하이, 리우데 자네이로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사진을 연결해서 지구상 어느 한 곳에서 배출된 기체가 이들 도시들을 지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Stop CO2, Act



그림 6. COP-21 부대행사로 마련된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필자(좌)

Now!”를 외쳤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과 구호에 귀 기울였고 박수를 치기도 했으며 구호를 외칠 때 함께 따라 하기도 했다. 일부는 직접 패널을 들며 주최 측 무리로 들어와서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본회의장은 대개 정부 대표단들만 출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파리 총회의 경우 공간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곳은 정부대표단으로 참가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했고 다른 한 공간은 블루존에 입장한 참가자들은 누구라고 들어가 볼 수 있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직접 발표자를 대면할 수는 없었지만 발표 내용을 들을 수는 있었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교장관의 사회로 국가 대표들이 나와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펼쳤는데 내가 참관한 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이희성 의장과 UNFCCC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었고 흥미롭게 북한 대표의 발언 순서가 있었다. 북한 대표의 경우 다른 참가자들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공용어 6개 국어로 발표한 것과 달리 한국어로 발언을 해서 상당히 이색적이었다. 한국어를 알아듣는 나로서는 북한 대표가 의장을 향해 “의장 선생!”이라고 부를 때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북한 대표는 기후변화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자신들도 함께 한다고 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기체 배출량을 37.4% 감소시키겠다고 하면서 향후 10년간 63억 그루의 나무 심기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것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교시라고 했다. 다시금 최고 통치자 1인의 발언이 국가 계획이 되는 북한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의 파리 총회 참관은 끝이 났다. 총회 중반쯤에서 총회장을 떠나왔기에 총회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상당히 궁금했다. 파리 총회는 종료 예정일인 11일을 넘겨 12일 날 끝이 났고 애초 협정 타결 발표 예정 시간이었던 오후 5시 30분으로부터 약 2시간가량 뒤인 2015년 12월 12일 오후 7시 16분에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교장관의 파리협정 타결 발표가 있었다. 파리 총회가 열리기 1년 전인 2014년 11월, 세계 2대 온실기체 배출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서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파리 협상이 무난히 타결되어 파리협정문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는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지만 총회 기간 내내 여전히 국가 대표들이 국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꺾을 기미를 보이지 않기도 해서 한 때 협상 타결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기 때문에 파리협정 체결은 상당한 낭보였다.

그렇다면 파리협정문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먼저 지구 전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파리협정문에서 196개 당사국들



그림 7. NGO들의 퍼포먼스 (촬영: 윤순진)

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낮게, 1.5°C까지 억제하기로 하였다. 이 목표는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COP-15에서 당사국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2°C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로 하였고 이듬해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COP-16에서 이 목표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칸쿤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2°C 훨씬 아래, 1.5°C까지 제한하도록 하였다. 그간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에 위험을 느낀 소도서 국가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코펜하겐 총회를 통해 기후변화의 전지구적 대응을 위해 역사적 배출 책임이 훨씬 더 큰 선진국들이 재정 공여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20년부터는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도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파리협정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보다 명백히 했다. 그리고 갈수록 기후재난들이 발생해서 기후변화 유발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나 인구 집단이 피해를 입는 일이 늘어나면서 ‘손실과 피해’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국제적인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파리협정문에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을 지속하며 정보 제공과 리스크 전가(risk transfer) 문제를 다루는 청산기관(clearinghouse)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파리협정은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까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게 했다는 점, 이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은 고무적이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며 선진국의 역사적 배출이나 현재 배출이 높다는 점도 문제지만 개도국들의 배출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 그렇다. 1992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서 2005년에 발효된 이후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져서 교토체제라 불렀다. 교토체제에서는 선진국들에게만 온실기체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마저도 선진국들 중 역사적 배출책임이 가장 크고 현재 배출량 또한 가장 높은 미국의 2001년 교토

의정서 탈퇴와 2011년 캐나다의 탈퇴, 그리고 2012년 일본, 러시아의 제2차 교토의정서 이행 기간 불참 선언으로 교토의정서 체제는 전 세계 배출량의 15%만 감당하는 체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신기후체제에서는 무엇보다 이제까지 교토체제에서 벗어나 있던 선진국들은 물론 개도국들까지 아우르는 체제라는 점에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체제와 달리 상향식 접근을 취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기체 감축 목표와 적응계획 등을 정한 후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문제는 현재까지 발표된 국가별 기여방안에 제시된 온실기체 감축목표가 모두 달성된다 해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7~3°C 정도 높아진다는 데 있다. 1.5°C 목표는커녕 2°C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별 국가들의 온실기체 감축 목표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파리협정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국가별 기후행동을 확인하고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도록 하면서 “후퇴금지 원칙”에 따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다. 2023년이 되면 당사국들은 파리회의 전에 제출했던 2025년 또는 2030년 감축목표를 넘어선 기간에 대해 다시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감축 목표는 현재 제시된 목표를 넘어서야 한다. 후퇴금지의 원칙을 얼마나 성실하고 엄격하게 잘 지켜갈지 또는 지켜가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파리협정이 실효성을 갖는지 여부는 선진국들이 약속한 재정 지원이나 기술 이전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파리협정이 인류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제 화석연료시대는 끝난다는 것, 화석연료시대를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기체들 중 가장 중요한 기체는 바로 온실기체의 76%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이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의 86%는 바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비롯된다. 결국 화석연료 연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한 때 인류는 화석연료의 고갈을 염려했다. 하지만 이제 화석연료가 없어서 못 쓰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가 여전히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요즘 “태울 수 없는 탄소(unburnable carbon)”란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낮게, 1.5°C까지 억제하려면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곤란하다.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탄소예산이라 부르는데 기후변화를 제한해야 하기에 탄소 예산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있어도 탄소 예산 한도 안에서만 태울 수 있기에, 매장되어 있지만 태우지 말아야 할 화석연료의 양이 바로 태울 수 없는 탄소인 것이다.

IPCC의 제5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태울 수 없는 탄소는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의 80%에 달한다. 연료별로는, 석탄 82%, 천연가스 49%, 석유 33%는 캐내지 않고 지하에 그대로 묻어둬야 한다. 게다가 이 양은 파리협정 체결 이전 목표인 2°C 이내로 온도 상승을 유지할 때에 해당하는 거라서 1.5°C목표에서 태울 수 없는 탄소의 양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세계적인 정유기업 셸(Shell)의 회장이 언급했듯이 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돌이 남아돌았지만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행했던 것처럼 화석연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화석연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류는 화석연료시대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 상황이 더 가혹한 지도 모른다.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야 하기에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서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

고 그 결과 낮아진 가격은 또 수요를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파리협정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금의 생활양식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이 소비를 늘려 온 화석연료의 사용에 절대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모두가 참여해서 이러한 한계 이내로 삶을 변화시키자는 국제사회의 합의이다. CNN, 가디언(Guardian), 타임(TIME), 로이터(Reuters), 포브스(Forbes), 텔레그래프(Telegraph) 등 세계의 저명한 언론매체들에서는 파리협정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국제협약이나 협정을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단호한 제재를 취하는 게 어렵지만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느슨하지만 국제협약은 힘을 가질 수 있기도 하다. 특히 그린피스나 저먼워치(German Watch), 기후행동추적자(Climate Action Tracker) 등 세계적인 시민단체들이나 연구소들에서는 각국의 온실기체 배출량을 추적하고 선언한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각국이 제출하거나 선언한 감축 목표가 얼마나 야심차고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감축 목표는 그저 종이선언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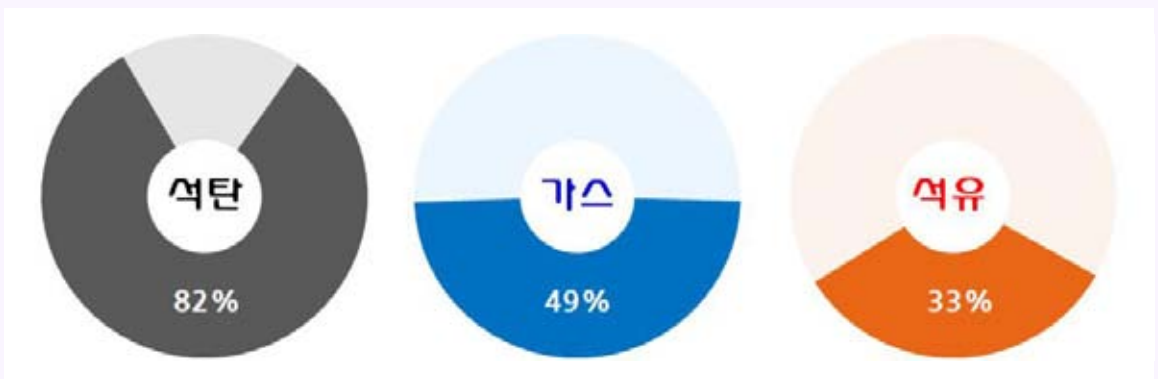


그림 8. 매장량 중 태우지 말고 남겨둬야 할 화석연료별 비중 (자료: McGlade and Ekins, Nature, 2015 재구성)

이제 남은 건 실천이다. 기후변화 위험이 갈수록 커져 가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변화를 야기한 데 별다른 책임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미래세대, 다른 동식물들이 더 많은 피해에 노출되고 대응능력이 크지 않기에 더욱 위험한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기에 기후정의의 회복하는 정 의로운 전환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심각한 기 후변화가 예상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야 할 길은 너무

나 자명하다.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변화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현명 한 일이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강제적인 변화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변화될 것을 요 구하는 자연의 호소로 이제 우리가 이 호소에 답해야 할 차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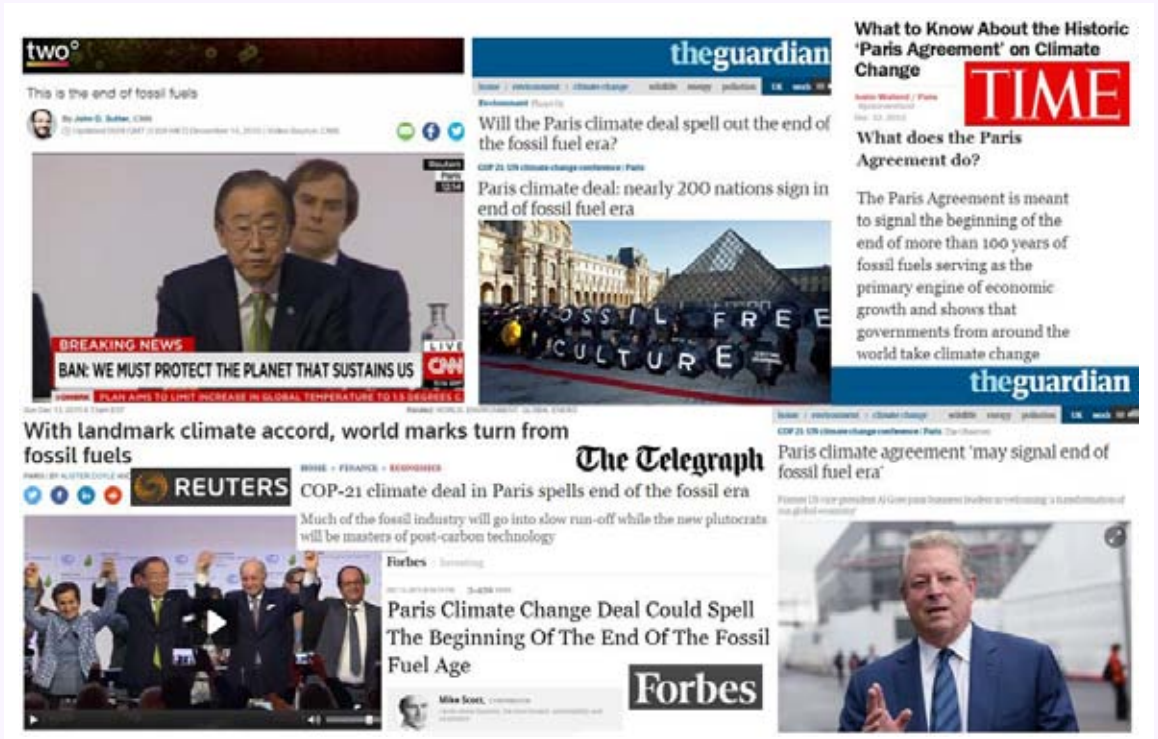


그림 9. 세계적인 언론매체의 파리 협정 타결 보도: “화석연료시대의 종언” (자료: McGlade and Ekins, Nature, 2015 재구성)